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20>



무엇을 깨닫고 싶은가

깨달음의 세계에 어서 빨리 들어가고픈 젊은 수행자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덕이 높은 큰 스님을 스승으로 삼기며 지냈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스승을 모시면서 틈만 나면 이렇게 청하였습니다. "스승님, 가르침을 내려 주십시오." 그런데 스승은 처음부터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너만 못하다. 네 스스로 깨달아라."

고 내려가자 커다란 돌덩이에라도 짓눌린 양 무겁기 짝이 없던 가슴이 순식간에 깨운해졌습니다. 눈앞이 깨끗해지자 주먹을 쥐고 있는 자신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주먹이 보였습니다. 분노에 차올라 스승을 향해 높이 쳐들었던 주먹이었습니다. 그는 멱살을 쥔 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스승 앞에 태산이 무너지듯 무릎을 꿇고 온몸을 던져 절을 올렸습니다. 책에서는 그가 활연히 대오(豁然大悟)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그의 깨달음의 순간을 벼락을 맞은 듯 진 울하였으리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번뇌하는 주인공도 깨달음의 주인공도 나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자신에게 물어야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르침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스승을 찾아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큰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외진 곳에서 스승을 기다렸습니다. 오직 끝장을 내고야 말겠다는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을 지나던 스승과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대번에 스승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이래도 제게 말씀해주시겠어요?" 멱살이 잡힌 스승은 숨이 막혀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얼굴을 찡그리는 스승을 노려보던 젊은 수행자는 비장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는 수 없습니다. 아무도 스승이라 해도 이제 더는 못 참겠습니다."

고 들어서 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저보다 앞서 그곳을 떠나갔는데 그가 남긴 여운에는 실망스러움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온 이유에 대해서 '좋은 것 같아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초심자를 대상으로 불교에 대한 강의할 때 저는 종종 묻습니다.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이들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요..."입니다. 불교공부를 좀 해보았지만 알 듯 모를 듯 하고 뭘 말하는 건지 종잡을 수 없다는 이들에게 '대체 뭘 알고 싶은가?'를 물으면 그들은 멧쩍은 듯 웃으며 고개를 가웃합니다. 번뇌에 시달리는 주인공도 자기이고 깨달음의 주인공도 자기이거늘, 자기가 왜 그곳에 있는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스승은 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너만 못하다. 네 스스로 깨달아라."



연화도 법회가 풍랑때문에 취소되자 안타까워하는 신도들에게 고산 스님은 "어떤 일이든 쉽게 이룬 일은 쉽게 어그러지고, 어렵게 이룬일은 오래가는 법이니 기도나 공부도 쉽게 이를 생각 하지말라"고 당부했다.

온 마음 쏟으면 뭐든 할 수 있어



고산 스님

(쌍계사 조실)

"무슨 말을 들으려고 나를 그렇게 따라 다녀?" 그리고 보니 정말 그랬다. 이른 아침, 부산을 출발해 오후 1시가 넘도록 스님 뒤를 졸졸 따라 다닌 셈이었다. 통영 연화도 연화사에서 고산 스님의 법회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따라 나선 길. 그날따라 전날 내린 눈으로 길은 얼어붙고, 강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부산을 출발했지만 차들은 거북이걸음을 하고, 느린 속도에도 불구하고 제 맘대로 미끄러지는 차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평소 3시간이면 충분한 통영까지 5시간 이상이 소요됐

다. 이제 연화도행 배를 타는 것만 남았는데... 바다 가운데 회오리가 불어 배가 뜨지 않는다는 전갈이었다. 연화도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미레사로 향한다는 스님 뒤를 따라 미레사로 향하던 길, 다시 목적지가 용화사로 바뀌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곧장 차머리를 용화사로 돌려 오후 1시가 훌쩍 넘어서야, 스님께 인사를 여쭙 것이다. "스님, 참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요. 어떤 일이든 쉽게 이룬 일은 쉽게 어그러지고, 어렵게 이룬 일은 파괴가 잘 안 돼요. 모든 기도나 공부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해야 성공의 바탕이 단단한 거예요. 오늘도 잘 들어갈 건데, 시련을 한번 겪어 보는 것이지." 젊은 반나절, 고산 스님께 법문을 듣기 위해 나선 여정에서 불현듯 사역으로 진리를 구하려 떠났던 옛 선지식들의 머나먼 구도 여정이 떠올랐다. 교룡수단조차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절, 진리를 찾아 떠났던 선지식들 중에는 그 먼 여정에서 중도 포기하거나 목숨을 잃었던 구도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물러서지 않는 신심으로 목숨을 걸고 지켜내고 이어왔던 법의 흐름이 이 시대 우리의 길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리라. 거기에 생각이 닿자, 앞서간 선지식들과 현 시대를 지켜가고 있는 선지식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고산 스님을 뵈는 일이 무엇보다 바랄 수 없는 소중함으로 다가왔다. 스님께

서 주로 추석하시는 부산의 혜원정사에서 보았다면 결코 느껴보지 못했을 법의 소중함, 스승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눈길로 열어놓은 통영행이 일깨워 주고 있었다. 바다길이 막혀 못가고 단 통영 연화도 연화사 불사 얘기부터 여쭙었다. 연화사는 고산 스님께서 창건하신 절이다. 한번의 법회 참석도 이리 우여곡절이 많은데, 불사하는 긴 시간동안의 어려움은 얼마나 컸을까? 인내와 노력 무엇보다 중요 "불사는 처음부터 신심으로 하는 것이지 신심이 아니면 잘 안돼요. 15-16년 전에 처음 현지답사를 가서 3일간 민박을 하면서 전체 설을 일주하고 3월째 되는 날에 사명대사, 연화도사 토굴터를 발견했어요. 당시 연화도 세계를 상징해서 지은 시구는 남아 있는데 어찌서 절터도 하나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절을 하나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 때문에 발 두 떼기를 사놓고 나온 것이 지금 연화사와 보덕암 정전으로 열매를 맺은 것이요." 이후 스님은 10년에 걸쳐 2만여 평의 땅을 샀고, 3년 만에 연화사를 완공했다. 이어 보덕암 불사도 3년 만에 완공한 스님은 앞으로 연화장 세계를 염두에 둔 불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해수관측상을 모신 옆에다가 극락, 인간세계, 지옥세계를 상징

병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모십니다. 청정한 우리 사찰에서는 이해 못할 불가사의한 일이 있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와 보물영각과 백의관세음보살의 기도 가피 원력으로 마음병, 몸의병 (특히 위장병, 장병, 변비 같은 만성질환 등), 아토피 피부부형 현자들이 왕림하셔서 정진기도와 감로수 물을 드시고 많이 좋아 지셨습니다. 청정 감로수 물(지장 水: 사찰내에서 부르는 이름)은 기도 중 백의관세음보살님께서 이 물로 많은 중생을 건지라는 선공을 주신 것입니다. 본 사찰에 방문하시는 분들께 지장수를 드려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많은 불자들에게 지장수를 드려 병고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다고 발원하였습니다. 아무런 조건없이 병의 고통을 받는 여러 불자들에게 청정한 감로수(지장수)를 무료로 드립니다. 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천안 방향을 타시고 성환역에 하차하십시오. 전화바랍니다. 연화정사 041)588-7779, 010-6772-7485

정월 방생 및 삼사순례. 각 사찰 대덕큰스님께 아릅니다. 본 성모암은 조선 명종때 청건된 사찰로서 동양의 소 석가의 칭호를 받으신 진목대성지(佛)의 모친 묘소가 있는 무자손 천년함화지(無子孫 千年香火地)입니다. 진목대사(佛)에서 열반후 천년동안 향(香)불이 이어지는 명소이며 아울러 근처에 육신방생지가 위치하고 있어 방생 및 삼사순례의 적격지로, 근처 10분거리에 금선사와 일해사(뉘신사)등 천년교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모암에 순례하시길 성모암 사무대중이 서원 합니다. 종무소 ☎ (063)544-0416 www.sungmoam.net.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 대형주차장(50대 동시주차 가능)에서 평지로 100m이며, 노인분들도 참배가 용이 합니다. 방생을 준비 가능. 반드시 사전예약만 가능합니다. (전통사찰111호) 성모암.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점포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지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위치 및 시설 개요. 소 계 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북정동 116. 대 상: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주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정 원: 24명~30명 내외. 시설개요: 본 건 물 - 방규포(약 7평) 24실(각실 인터넷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 2 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식당, 오락실. 입방비부담: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연 락 처: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보살 염불원의 특징.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영불과 기도경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살기엔 노인원인 기도처입니다.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경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교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기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하는 공간을 빙 둘러가면서 조성하고 상봉으로 오르는 연화로는 부처님 입대기를 테마 조각공원으로 만들 작정이다. 상봉 옆에는 연화도인 토굴터를 복원해서 동상을 모시고 그 옆에는 사명대사 토굴터도 복원해서 사명대사 동상도 모시게 된다.

스님이 꿈꾸고 추진하는 연화장 세계를 향한 불사는 벌써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끌면서 연화도 주민들의 생활 패턴을 확 바꿔놓았다. 연화도를 찾는 사람들이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면서 객지로 떠났던 선 주민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섬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스님의 원력이 죽어가던 섬마을을 부처님의 진리가 살아 숨쉬는 수행처로 탈바꿈 시킨 것이다.

이처럼 스님은 퇴락해가던 하동 쌍계사를 정부 보조금 하나 없이 20년이 걸려 중창했고, 부산 해운정사, 부천 석왕사, 통영 연화사를 연달아 창건했다. 스님이 마음을 먹고 시작한 불사는 반드시 성사됐고, 수많은 대중들이 운집하는 가람으로 자리 잡았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이산 해연선사 발원문을 한문 그대로 아침마다 외워요. 72~75년 조계사 주지를 할 때, 내가 발원문 독송하는 소리를 듣고 신도들이 눈물 지었을 정도로 지극하고 간절하게 발원을 해 왔어요. 그 발원문 중에 큰 법당을 처처에 세우고, 마구니는 있는 대로 파헤치고,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서 시방 세계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내용이 나오요. 어릴 때부터 그 원력을 세워서 수행을 해 나왔어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다운 참다운 스님이 되겠다는 원력으로 처음 행자 과정을 할 때 밥 짓는 것, 반찬 짓는 것부터 차근차근 배워 나왔어요.”

자나깨나 남 돕는 언행해야

기분을 강조하는 스님은 ‘못하는 것이 없는’ 팔방미인으로 제자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스승이다. 중종요리 책까지 섭렵하며 배운 스님의 요리 실력은 일류 요리사 수준이다. 삼이나 썬이를 잡으면 입류 신봉세라는 얘기를 듣고, 대패나 망치나 툴을 잡으면 조계종단에서 도목수 소리를 듣는다. 김천 청암사 강원에서 강사를 할 때는 스님이 직접 학생의 책상을 손수 짜서 줬을 정도였다. 통나무를 쪼개서 대패질을 하고 아교풀로 붙여서 서랍을 하나씩 넣어 만들었다고 했다. 아직도 그 책상이 남아 있을 것이라며 웃어 보이는 스님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온 마음을 다 기울이면 최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든 일은 계획을 정정히 지키면 다 이뤄지는



누구든지 일상을 살면서 부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고산 스님.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하듯이 계획이 바로 그 기초에 해당합니다. 석암 스님께서 계행(戒行)을 청정히 지키면 계덕(戒德)으로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항상 하셨는데, 과연 그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세상일은 이뤄 놓고 보면 잘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루기 전에는 시시비비가 많아요. 부처님도 6년 설산고행 하고 또 두루 익힌 것을 종합해서 12년 수도를 해서 성불 했으니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알아주지, 금방 가서 2~3일 만에 성불했으면 누가 믿어 주나요?”

스님은 요즘 사람들은 근기가 약해 조금만 고달피도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하며다 인내하며 끝까지 이루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미 부처님께서 설해 놓은 것대로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어요. 법화경, 화엄경에 보면, 이미 삼천년 전에 한자리에 앉아서 삼천대천세계의 말을 다 듣고, 가만히 앉아서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물건을 다 볼 수 있다고 했거늘요. 30년 전에 법문하면서 그 소리를 하니 미친 놀이라고 하더니만 TV, 컴퓨터, CD까지 나왔잖아요. 수미산이 겨자씨 속에 쏘옥 들어간다는 말씀이

CD의 출현으로 증명된 셈이지요. 그러니 과학자들이 진짜 제대로 된 컴퓨터를 만들려면 인간의 두뇌를 모델로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한계가 없는 컴퓨터가 바로 인간의 머리로,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의 도리를 잘 연구해서 밝혀내고 그 도리를 따르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다보면 언젠가는 불국토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스님의 확고한 믿음이었다. 또한 스님은 불제자의 가장 핵심은 부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강조했다.

“누구든지 일상을 살면서 부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스님뿐만 아니라 살림살이 해가면서요. 틈틈이 공부하면 아이나 어른이나 노력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면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자기 마음 깨달아가지고 되는 것이니 노력해야 이 말입니다. 꾸준히 틈을 내서 하루 몇 분이라도 참선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불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짱을 앞길 트이고 행복 찾아와

생활 속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간단명료하게 정리해주는 것도 없이 없었다.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전체 우리 국민이 자나 깨나 남에게 도움을 주는 행이나 말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해요.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급자족하는 것이 중요함니다. 셋째는 노력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노력하면 성공합니다.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나도 죽을 고비를 몇 번 씩 넘기면서 공부를 했어요. 내가 고생한 것을 털어놓으면 전부 다 불립니다. 세상 살아가다보면 억울한 소리도 듣게 되고 마음먹은 것을 마음대로 이루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로 베짱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만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배푸는 것으로 복이 오는 것입니다. 물질로 배푸는 재보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법보시, 다른 사람의 두려움이나 고통을 없애주는 무의식 등 내 가진 모든 것을 베짱을 앞길 트이고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앞길은 현재 자기의 심다른 행동 하나 하나가 열어가

는 것입니다.”

강종과 얼어붙은 길 때문에 포기했다더라면 걸을 수 없었던 고산 스님의 귀한 법문이, 부산으로 향하는 길목을 확 뚫어놓고 있었다. 막힘없는 길, 그 길을 열어준 부처님과 선지식들에게 마음의 삼배를 드리면서 돌아왔다.

글=천미희 기자 사진=박재만 기자



지연 스님의 스님이야기

활연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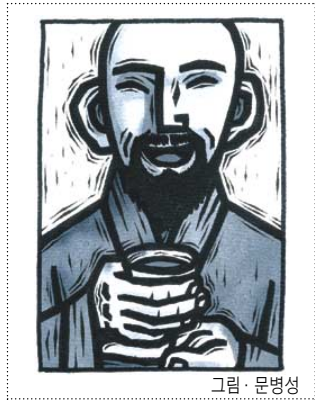
오래 전, 부산 금정산 범어사에서 잠시 머물고 있던 시절이었다.

그 당시 행당에는 고창 스님들, 조금은 특별한 내로라 하는 스님들이 여럿 동지를 틀고 있었는데, 아무런 소임도 맡지 않은 이른바 한주(閑住)들이었다.

활연(活然) 스님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 사실을 갓 넘긴 스님은 벨스립게도 수염을 길게 길러 늘어뜨린 채 취적취적 경내를 돌아다니곤 했다.

강주(叢主) 소임을 잠시 맡아 있다 그만두고 행당의 구석 방 하나를 차지하고 앉아 그럭저럭 소임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스님은 매우 박학했다. 어릴적부터 서당(書堂) 공부를 오래하여 유학(儒學)에 통달했을 뿐만 아



그림·문병성

나라 도가(道家)에 심취, 그쪽 방면으로 상당한 식견을 갖추었다고 들었다.

이렇듯 유추해 보건대 활연 스님, 그는 가히 유불선(儒佛仙) 삼도(三道)에 깊이 발을 적시고 유유자적, 그만의 행보를 누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선도(仙道)의 맛을 좇아 그는 다른 스님네들이 잘 하지 않는,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는 그러한 습성을 혼자 기우고, 그 나름의 자족(自足)에 젖어 있었을까.

강주 소임까지 맡아 본 스님 방에 수많은 장서들이 소중과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처음으로 구경삼아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놀랐다. 그의 방엔 조그만 경상 하나와 조출한 다구(茶具)들 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장서리곤 찾아볼 수 없는 그의 방, 그것이 활연 스님 그의 실재였다.

책을 통해 얻는 지식은 공(空)하다고 했든가, 서책과 경서(經書)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것에 집착하면 근본 대의(大義)를 잃는다.

부처님께서 설한 팔만四千 대장경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길을 가리키는 하나의 방편이 아니든가. 그러한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활연 스님은 아예 책을 곁에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일까, 문자(文字)에 집착하면 오히려 심안(心眼)이 흐려지는 법, 맑은 바람소리를 듣고 향기로운 한잔의 차로 파적(破寂)의 맛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대장부의 할 일이다.

서책과 사리(事理)에 문혀 일희일비(一喜一悲)함은 소인배의 한갓 불남의 낮 꿈 같은 것, 가를 거러다 사라져 버리는 아지랑이 같은 것.

팅 비어있는 활연 스님의 방은 비어있으므로 더욱 총만해 보였다. 정갈한 스님의 방에 마구 앉아서 차를 내들러치면, 바깥에서 불어대는 솔바람 소리가 한층 드높아졌다. 스님은 가끔 몇 마디 우스개 소리를 한 뒤 긴 수염을 흔들며 너털웃음을 터트리곤 했다. 아무런 티끌도 없는, 물이 있지 않은 그의 너털웃음이 빈방의 적막을 흔들었다.

아무런 사심도 욕망도 없이 그 나름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활연 스님은 진정한 도인이었다. 행당 옆 개울가 바위 위에서 무언가 골똘한 생각에 잠겨있는 스님을 가끔 목격하곤 했다. 그 고요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 말쑥이 서서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는 개울물 소리를 따라 어디론가 멀리로

책 가득할것 같던 스님방은 텅 비어 있어 더욱 총만

떠나가고 있는 듯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혼자만의 세계를 향하여 등등 떠나가고 있는 듯했다. 인간이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어우러져 합일(合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의 길이요, 무상(無上)의 보리(菩提)라 할 수 있겠다.

개울가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 있는 활연 스님은 과연 스스로도 모르게 자연의 한 부분으로 회귀(回歸)하고 있었을까.

점심공양이 끝난 뒤, 그는 어김없이 개울 쪽으로 향하곤 했다. 인적이 뜸한 그곳이 그의 성미에 딱 들어맞는 모양이었다.

봄이면 읊트는 버들개지와 함께, 여름이면 나무 그늘 아래서 발을 담그고, 가을이면 때내려 오는 붉은 나뭇잎들을 응시하고, 겨울이면 얼음장 아래서 돌돌거리며 흘러내리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활연 스님은 거기, 개울가 바위 부근을 그의 수행처로 삼았다.

어디 그만한 수행처가 있을까, 사시사철 변화하는 계절의 면모를 지켜보면서 그는 스스로를 자연의 한 부분으로 동화시켜 나갔을 것이다.

오래 전, 금정산 범어사에서 잠시 머물고 있던 시절, 활연 스님이란 조금은 특별한 스님이 있었기에 당시 나의 삶은 단조롭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의 행보를 곁에서 물끄러미 지켜보면서 범상치 않은 한 수행인의 풍도(風貌)를 느꼈기 때문이다.

■ 문화 청행사 주지

초파일 독불공 참회기도로 바꾸고 신도들 설득해 찬불가 보급

고산 스님은 1970년대 초 조계사 법당 앞, 노보살들을 중심으로 대모가 열렸다. ‘신성한 법당을 노래자랑 무대로 만들 셈이냐’는 항의가 거세였다. 법당에 석주 스님을 모시고 윤문 스님을 주축으로 만든 첫 찬불가를 부른 다음날 일어난 풍경이었다. 그 당시 주지는 고산 스님이었고 찬불가를 만들어 부르자고 제안한 것도 스님이었다. “그때, 보살들의 반대가 대단했어요.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노래는 포교의 좋은 방편이 된다고 생각해 설득을 했죠.” 고산 스님은 부

산에서도 한차례 흥역을 치르며 찬불가 보급을 시작했고 그것이 불교음악의 시작이었다. 뿐만 아니라 스님은 조계사 주지 당시 연호·초파일 때 행해지던 독불공을 과감하게 없앴다. 독불공을 참회기도로 바꿔 불자들의 기도와 정진 열기를 높여나갔다. 이처럼 앞서가는 생각과 추진력으로 일관해온 고산 스님 지금도 불교의 미래를 가꾸려는 숨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1932년 율주에서 태어나 46년 출가한 스님은 강사, 율사, 선사, 법사로 쌍계사, 석왕사, 해원정사, 연화사 등을 오가며 대중 교화의 한 길

을 걸고 있다. 동산 스님을 계사로 48년 사미계, 56년 비구계를 수지하고 61년에 직지사 강원 대교과를 수료했다. 이후 전국교의 제방선원에서 안거를 성만하고 조계사, 은해사, 쌍계사 주지와 조계종 호계원장,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고산 스님은 <대승기신론 강의본><사람이 사탐에게 가는 길><선 깨달음의 길> 등 다수의 저서를 냈다. 부처님 말씀을 순 우리말로 노래한 시집 <마음이 곧 부처다>를 펴낸을 기념해 출간하기도 했다.

세계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의 소리와 문양!
- 해외로 수출되는 우리의 범종 -



한국 최초의 범종제작사로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종사는 지난 2002년 총북 진천으로 공장을 확장 이전, 20000원까지 제작 가능한 세계 최대의 주조설비를 갖추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최대의 범종제작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성종사의 명성이 國內는 물론 海外까지 알려져, 국내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직접 日本, 中國, 臺灣, 싱가포르, 美國,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으로 우리의 범종을 수출하는 등 국제시장에서도 탁월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최대인 광주 민주의 종(8150관) 제작중)

성종사 범종만이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리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한 성종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회사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윤성이 경교한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 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할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에 흑색 페인트칠을 했던 기존의 황색반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실시함으로써 질색, 구리색, 녹청색, 금색 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범당용)
불제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101
분리형



102
일체형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사찰 전구 (정품)

- ▶ 불제대원 고풍전구, 인자전구(정품)
- ▶ 종류: 3W, 5W, 10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일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필라멘트가 6배 (특 필라멘트)로 빛이 율듯이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 ▶ 사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 ▶ 건전지용 초, 방생, 램플이 명사용 청사초형 및 초형 곁이다

연 등 (정품)

법당등(구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근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 ~ 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 ~ 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